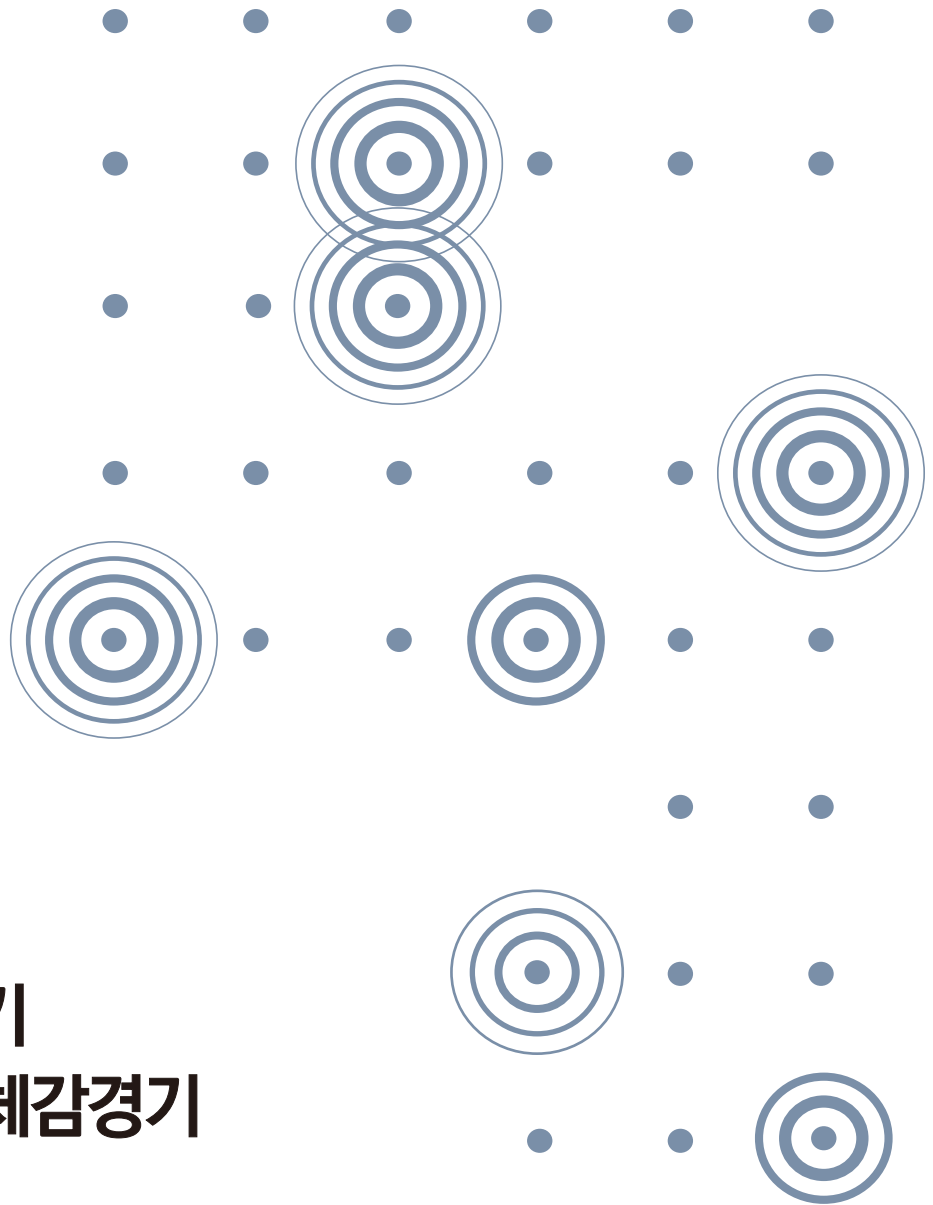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75호 2023. 7. 3



---

# 2023년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 제375호

2023년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3년 7월 3일

---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7. 3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75

---

## 2023년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02-2149-1223  
jbs66@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9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20
부록 2. 2023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21

## 요약

---

###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 제조업 생산은 감소 지속

2023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조사 이래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2023년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1.7로 전년 동월 대비 8.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으나 전월(-16.7%) 대비 감소폭은 축소했다.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23년 4월 137.0으로 올해 2월 전년 동월 대비 12.0% 크게 상승한 이후 4월 현재까지도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서울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 감소

2023년 4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14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8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감소폭은 3월 -2.2%에서 4월 -4.9%로 확대되었다.

###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래 4분기 만에 반등

2023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3.0p 오른 91.0으로, 4분기 만에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태도지수」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두 기준치(100.0) 이하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0.2로 전 분기 대비 1.9p 상승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3.6으로 전 분기 대비 0.4p 하락을 보였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판단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5.8p 상승한 59.0으로 나타났고,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5p 오른 73.3으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0.9로 전 분기 대비 1.4p 소폭 하락했고,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4.6으로 불과 0.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73.2로 전 분기 대비 4.3p 상승 반전했고, 주택 구입태도지수 또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 I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 제조업 생산은 감소 지속<sup>1)</sup>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

- 2023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4.8<sup>2)</sup>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 2023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조사 이래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
  -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운수 및 창고업’(4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9.7%), ‘부동산업’(28.7%) 등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상승

[표 1] 서울시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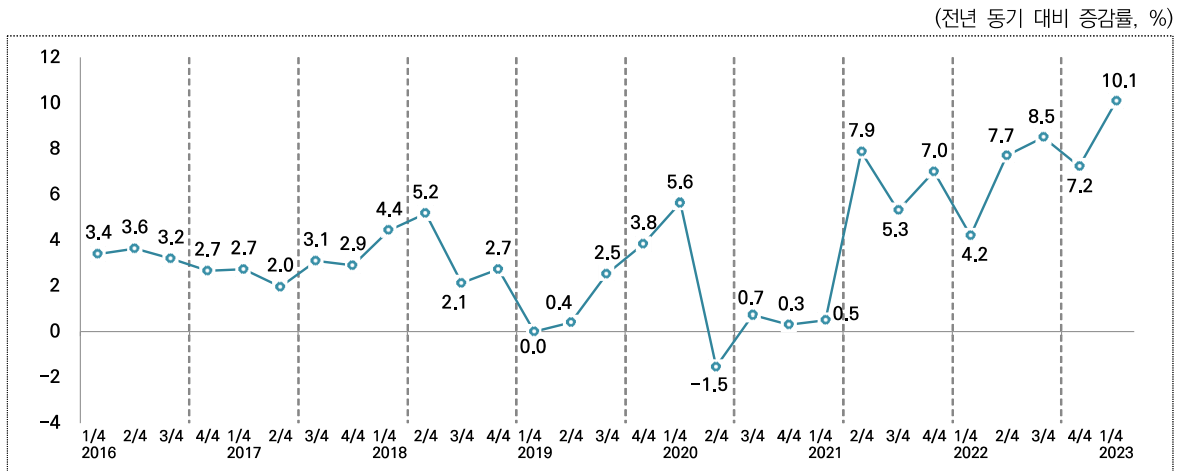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p)
총지수	104.0	103.4	113.2	104.3	112.0	112.2	121.4	114.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7.9	5.3	7.0	4.2	7.7	8.5	7.2	10.1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 1) 2023년 2/4분기 기준,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분기별로 자료를 공표함에 따라 2023년 1/4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인 반면, 월별 공표인 「제조업생산지수」는 2023년 4월이 가장 최근 자료임
- 2) 통계청은 최근의 시·도별 서비스업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연도를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공표함(2023.05). 또한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하였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축소**

- 2023년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1.7<sup>3)</sup>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8.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올해 3월 -16.7%에서 4월 -8.0%를 나타내며 감소폭은 축소됨

[표 2] 서울시 제조업생산지수(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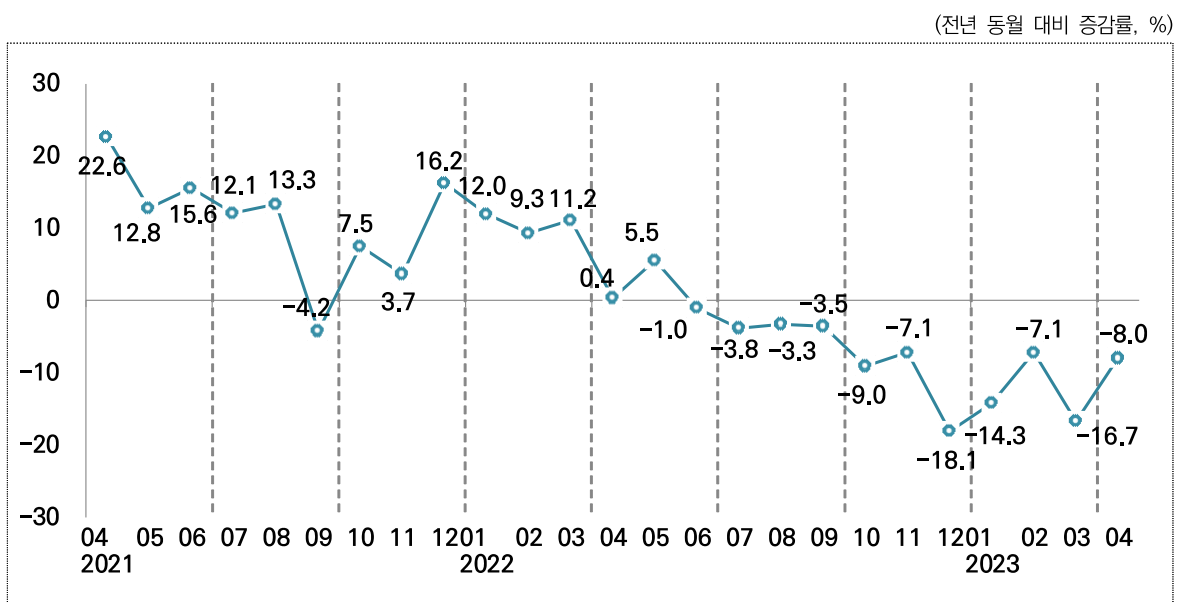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p)	4월 p)
총지수	110.5	103.1	104.3	103.7	107.7	108.8	107.8	107.8	110.5	94.4	93.6	105.4	101.7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0.4	5.5	-1.0	-3.8	-3.3	-3.5	-9.0	-7.1	-18.1	-14.3	-7.1	-16.7	-8.0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그림 2]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 증감률(원지수)

3) 「제조업 생산지수」는 2023년 1월 자료 공표 시 대표품목 변경에 따른 기중치 변경,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인해 과거 시계열이 변경(단위: 2020=100)되었고, 2020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20년 이후 지수는 1자리로 작성됨. 전국지수는 연쇄 라스파이레스, 지역 지수는 고정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작성됨.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 2023년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sup>4)</sup>는 올해 4월 137.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지난해 12월 136.0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갱신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올해 2월 전년 동월 대비 12.0% 크게 상승한 이후 4월 현재 까지도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표 3]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경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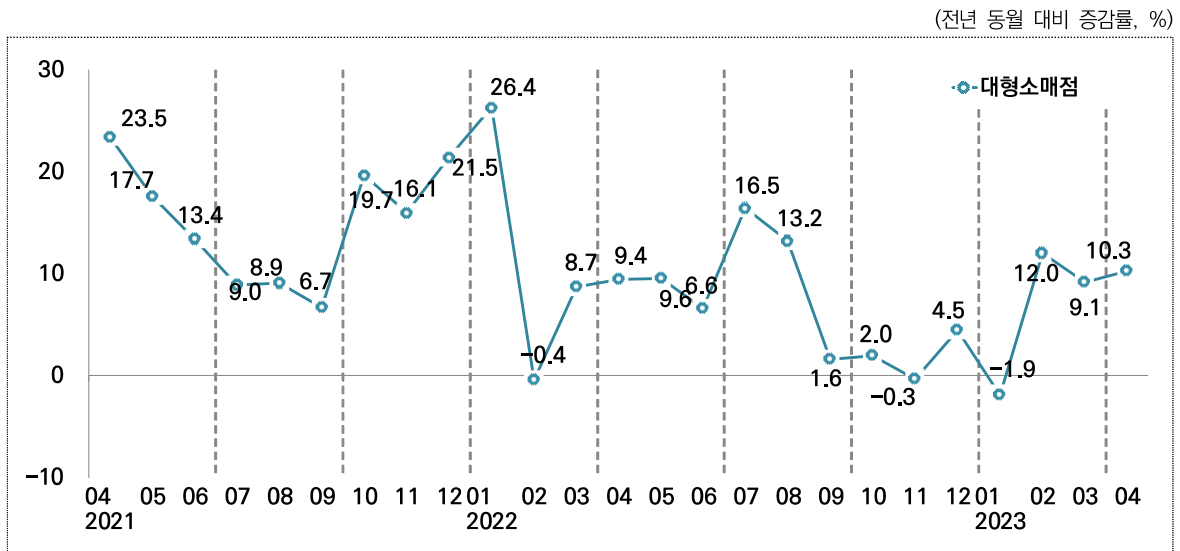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2월	3월	4월	2월	3월 p)	4월 p)
대형소매점 경상지수	103.9	123.5	124.2	116.4	134.8	137.0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0.4	8.7	9.4	12.0	9.1	10.3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1: 2020=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는 2분기부터 반영 예정)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음

- 부문별로는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모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의 상승을 견인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56.8로 전년 동월 대비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또한 10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하며 2022년 1월(10.4%) 이후 등락률이 가장 크게 상승

[표 4] 서울시 대형소매점 부문별 판매액지수(경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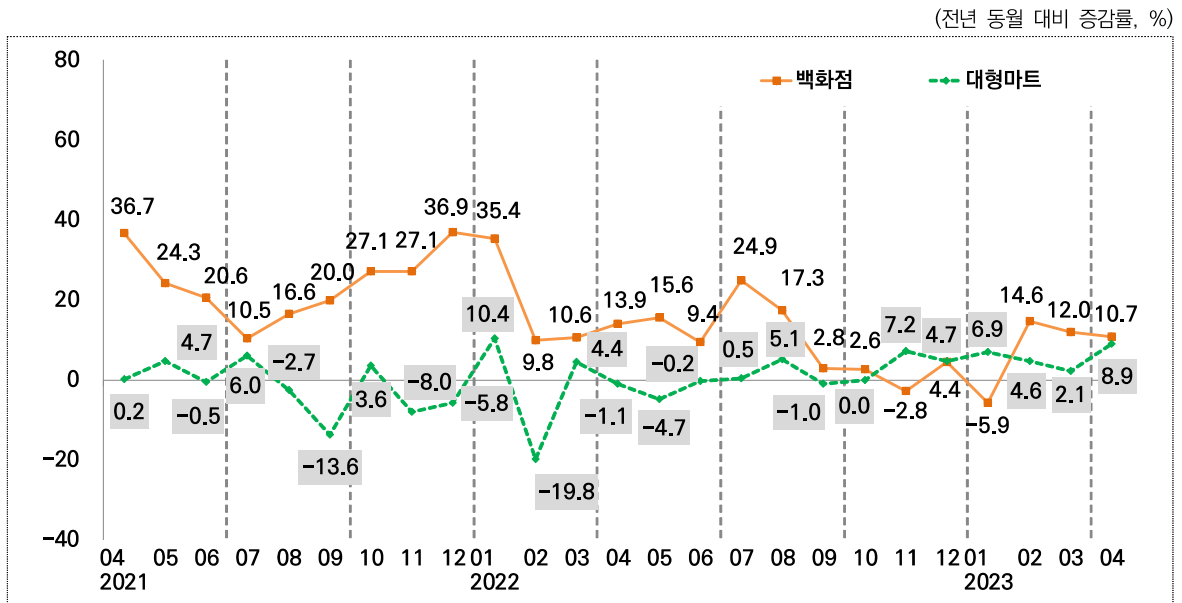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2월	3월	4월	2월	3월 p)	4월 p)
백화점 경상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117.5 (9.8)	137.1 (10.6)	141.6 (13.9)	134.7 (14.6)	153.5 (12.0)	156.8 (10.7)
대형마트 경상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79.7 (-19.8)	99.2 (4.4)	93.0 (-1.1)	83.4 (4.6)	101.3 (2.1)	101.3 (8.9)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1: 2020=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서울의 대형소매점 부문별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 2023년 4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sup>5)</sup>는 514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소폭 증가
  -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의 512만 명보다 2만 7천 명이 증가
- 반면,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는 8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 감소
  - 2023년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의 91만 3천 명보다 4만 5천 명이 감소한 86만 8천 명을 나타냄
  - 특히,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3월에 -2.2%에서 4월 -4.9%로 감소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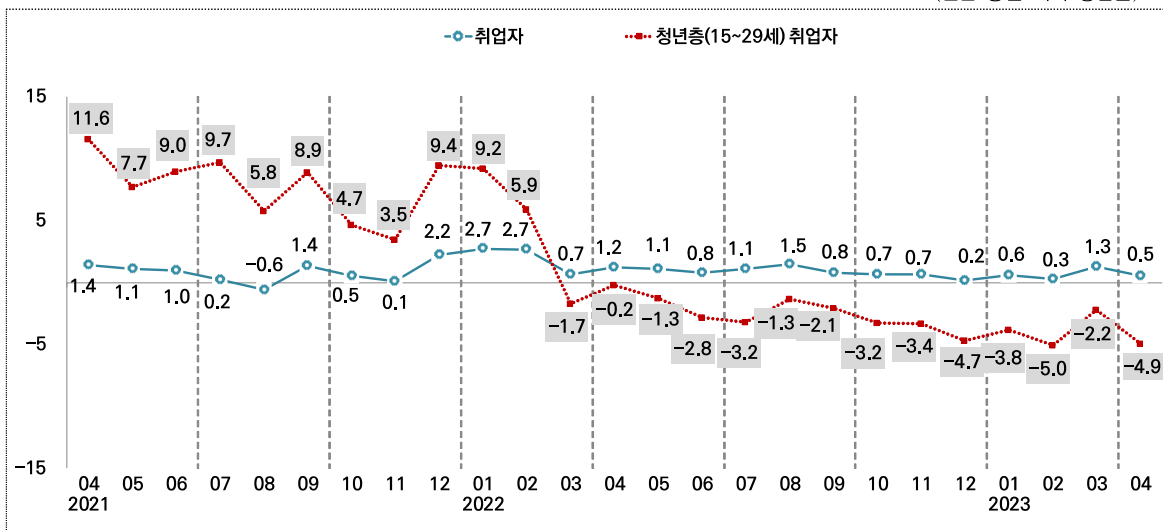
[표 5] 서울시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2022년			2023년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취업자 계	5,075	5,078	5,120	5,089	5,144	5,147
청년층(15~29세) 취업자	913	905	913	867	885	8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서울의 취업자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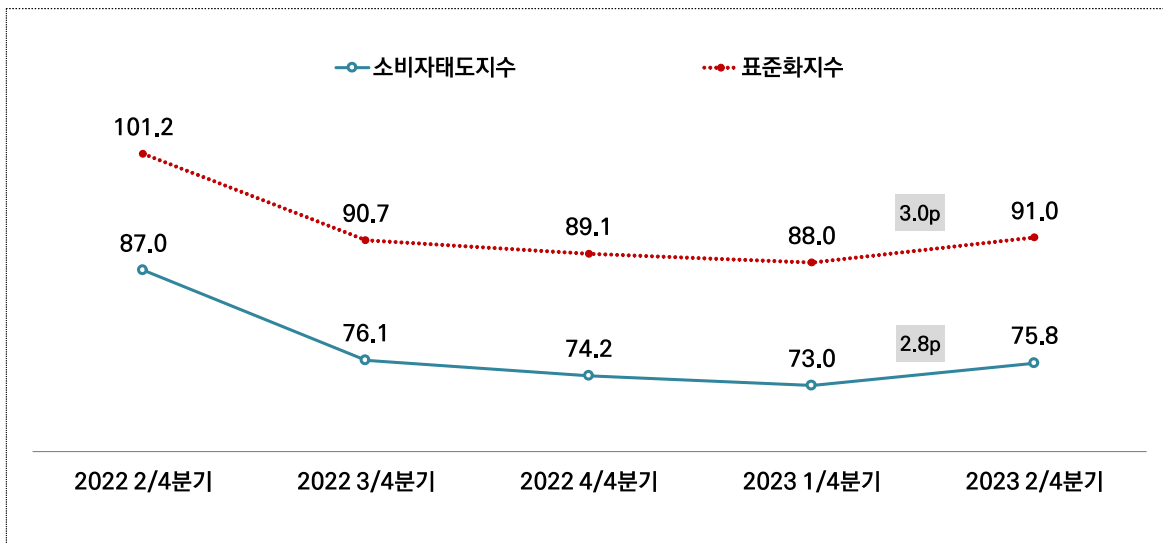
5)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 I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래 4분기 만에 반등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sup>6)</sup>는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다 2023년 2/4분기에 소폭 상승

- 시민의 체감경기를 종합하는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sup>7)</sup> 기준 3.0p 상승
  - 2023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3.0p 오른 91.0으로, 4분기 만에 상승 전환
  - 가구소득별 소비자태도지수는 대부분의 계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7.0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50대는 전 분기 대비 4.7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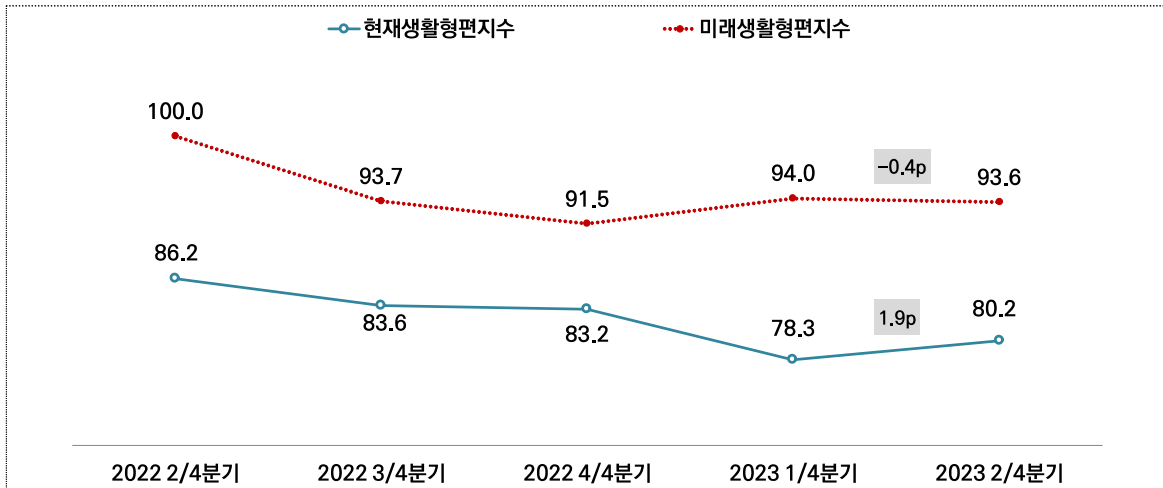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6) 5가지 개별 CSI 지수를 통해 산정되는 종합 소비자 체감경기지수(CSI)로서, 소비자태도지수의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고

7)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 2023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소폭 상승,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소폭 하락<sup>8)</sup>

-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0) 이하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9p 상승, 「미래생활형편지수」는 0.4p 하락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9p 상승한 80.2로 3분기 연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미래생활형편지수」는 0.4p 하락한 93.6을 나타냄
  - 가구소득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200만 원 이상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가 6.2p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큼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와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3.7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6.0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60대에서 3.2p 내려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7]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표 6] 서울의 계층별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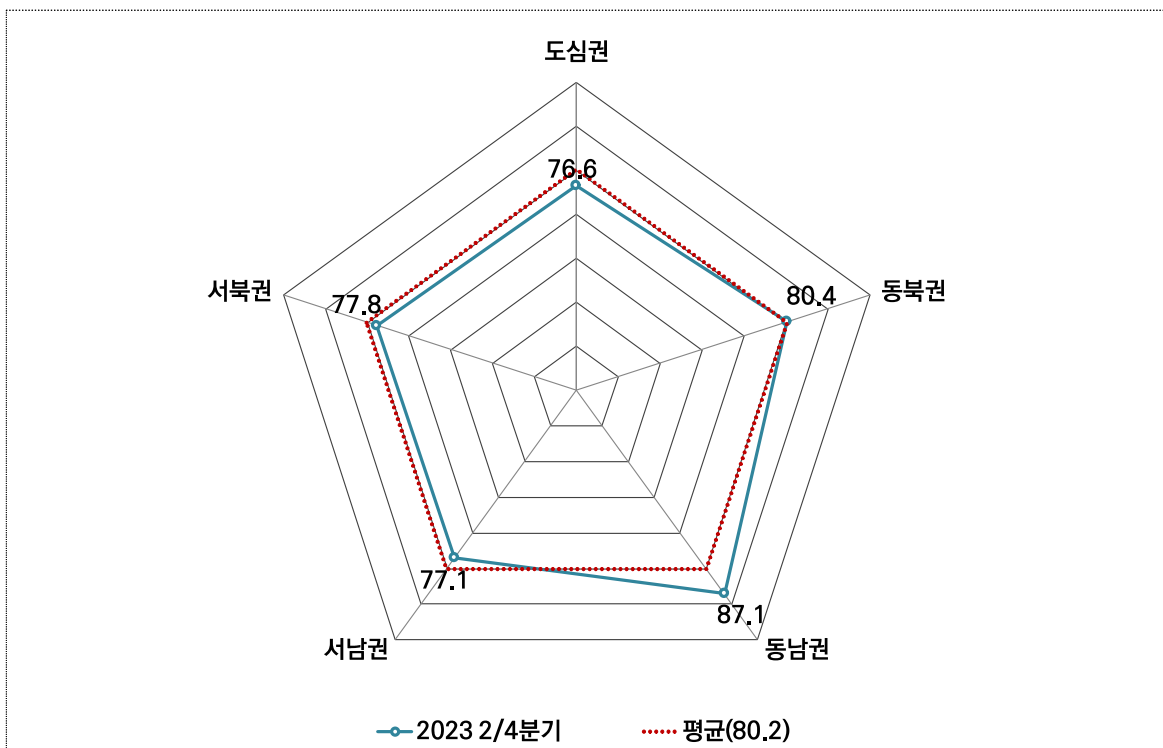
구분		2/4분기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	전 분기 대비	미래생활형편지수	전 분기 대비
전체		80.2	+1.9	93.6	-0.4
연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72.4	+0.9	90.4	-3.7
	2,400~3,600만 원 미만	78.8	+6.2	95.5	+0.9
	3,600~4,800만 원 미만	82.0	+2.8	98.1	+6.8
	4,800~6,000만 원 미만	78.6	+1.9	88.7	-0.9
	6,000~7,200만 원 미만	78.6	+3.5	92.6	-1.1
	7,200만 원 이상	85.2	-1.5	94.9	-2.1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86.7	+1.6	100.0	-1.3
	40대	76.2	-0.8	86.7	-2.4
	50대	76.4	+6.0	92.5	+6.1
	60대	74.8	+1.2	88.7	-3.2

8) '생활형편'은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가계생활을 해나가는 수준으로 살림살이의 형편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생활형편(1년 전 대비 현재의 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현재 대비 1년 후 생활형편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 서울시민들이 1년 후 가계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 시민들은 ‘물가 상승’(48.5%)을 가계 생활형편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고, 그 외에 ‘가계소득 감소’(16.9%), ‘가계부채 증가’(12.7%)도 주된 이유로 응답
  - 가구소득별로 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물가 상승’을 최우선 요인으로 꼽았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물가 상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특히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물가 상승’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4분기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남권이 가장 높고,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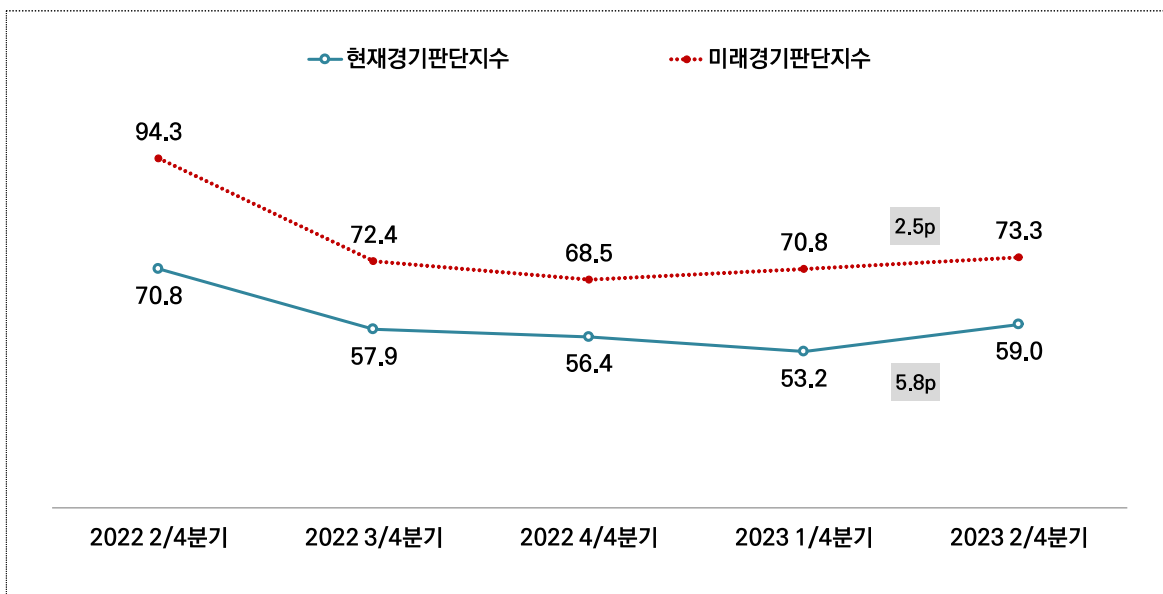
- 2023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이 가장 높고, 도심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
  - 동남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7.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동북권 80.4, 서북권 77.8, 서남권 77.1, 도심권 76.6 순으로 조사
- 1/4분기와 비교해 볼 때 동남권이 5개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5.0p)과 서남권(-0.9p)은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상승
  - 특히, 동남권의 상승폭은 5.8p(1/4분기 81.3 → 2/4분기 87.1)로 가장 크게 조사



[그림 8] 서울의 5개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 현재와 미래의 경기판단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sup>9)</sup>

- 2023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5.8p 상승한 59.0으로 지난 2022년 3/4분기 이래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승폭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가 11.7p로 가장 컸고,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1.7p로 가장 낮았음
  -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그 중 상승폭은 40대(8.0p)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23년 2/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5p 상승한 73.3으로 올해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완만한 상승
  - 2023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소폭 상승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 분기 대비 7.5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대별에서는 모든 계층이 상승한 가운데 40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폭이 4.3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그림 9]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9) '서울지역 경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경기(1년 전 대비 현재의 서울지역 경기)와 미래경기(현재 대비 1년 후 서울지역 경기 전망)를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미래에 경기 호전을 예상한 주된 이유로 '세계경기 회복'과 '기업경기 회복'을 지목<sup>10)</sup>**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세계경기 회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득과 연령대별로 인식의 차이 존재
  -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응답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경기 회복'(20.9%), '물가 안정'(14.7%) 등도 우선적 이유로 응답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6,000만 원 미만 가구 대부분에서는 '세계경기 회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물가안정'(25.8%)과 '부동산 경기 회복'(25.8%), 7,200만 원 이상 가구는 '기업경기 회복'(34.6%)을 최우선의 이유로 인식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세계경기 회복'(31.9%)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기업경기 회복'(각각 27.3%, 32.3%), 60대에서는 '물가 안정'(26.8%)을 최우선의 이유로 응답
  
- 2023년 5월 현재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3%에 진입
  - 전년 동월 대비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3년 1월 5.1% → 2월 4.8% → 3월 4.5% → 4월 4.1% → 5월 3.8%<sup>11)</sup>

**[표 기]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

(단위: %, n=1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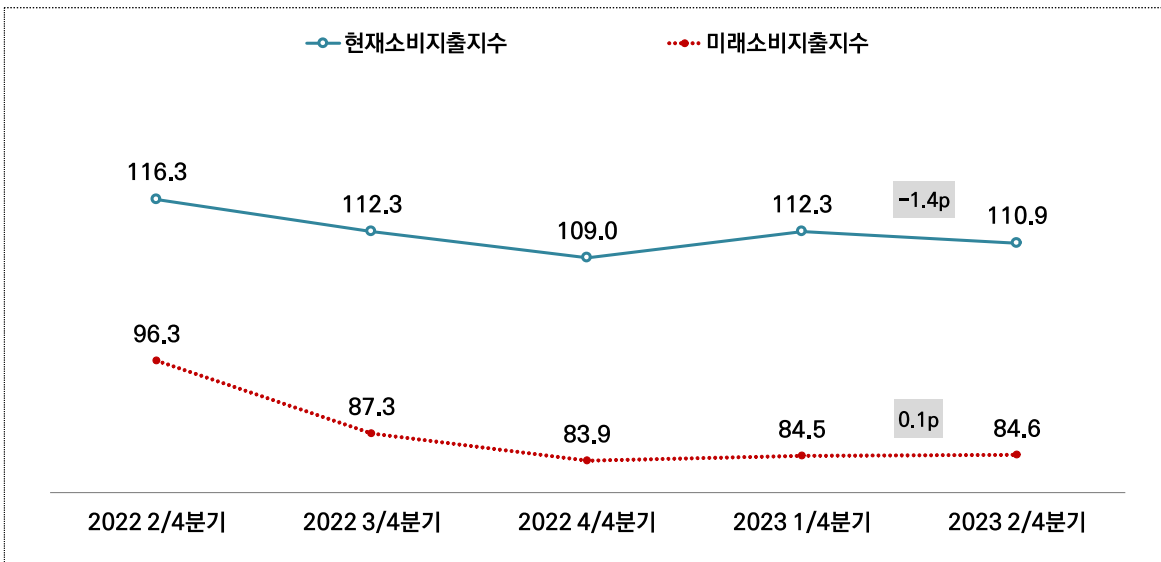
구분		세계경기 회복	기업경기 회복	물가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	막연한 기대감	주식시장 활황	기타
전체		25.2	20.9	14.7	14.1	12.3	11.0	1.8
연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22.7	22.7	13.6	13.6	18.2	9.1	-
	2,400~3,600만 원 미만	40.0	20.0	6.7	-	13.3	20.0	-
	3,600~4,800만 원 미만	25.0	12.5	18.8	25.0	12.5	6.3	-
	4,800~6,000만 원 미만	37.0	14.8	11.1	11.1	11.1	7.4	7.4
	6,000~7,200만 원 미만	9.7	6.5	25.8	25.8	16.1	12.9	3.2
	7,200만 원 이상	25.0	34.6	11.5	9.6	7.7	11.5	-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31.9	14.5	10.1	17.4	11.6	13.0	1.4
	40대	13.6	27.3	18.2	9.1	9.1	18.2	4.5
	50대	22.6	32.3	6.5	12.9	16.1	9.7	-
	60대	22.0	19.5	26.8	12.2	12.2	4.9	2.4

10) 1년 후 미래경기에 대해 서울시민의 13.6%(163명)는 '호전', 51.3%(616명)는 '악화'를 전망했는데, 이 가운데 미래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함

11)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재인용)

##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보합<sup>12)</sup>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다가 2023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1.4p 하락한 110.9를 기록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4.2p)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이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5.3p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큼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4.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지수는 98.0으로 가장 낮은 반면, 30대 이하는 전 분기 대비 5.2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지만 지수는 11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22년 4/4분기 이래 변동이 미미한 가운데 2023년 2/4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불과 0.1p 상승한 84.6을 기록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800만 원 미만 가구는 모두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고, 4,800만 원 이상 가구는 모두 하락했지만 변동폭은 미미함
  - 연령별 변동폭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30대 이하에서 0.5p 하락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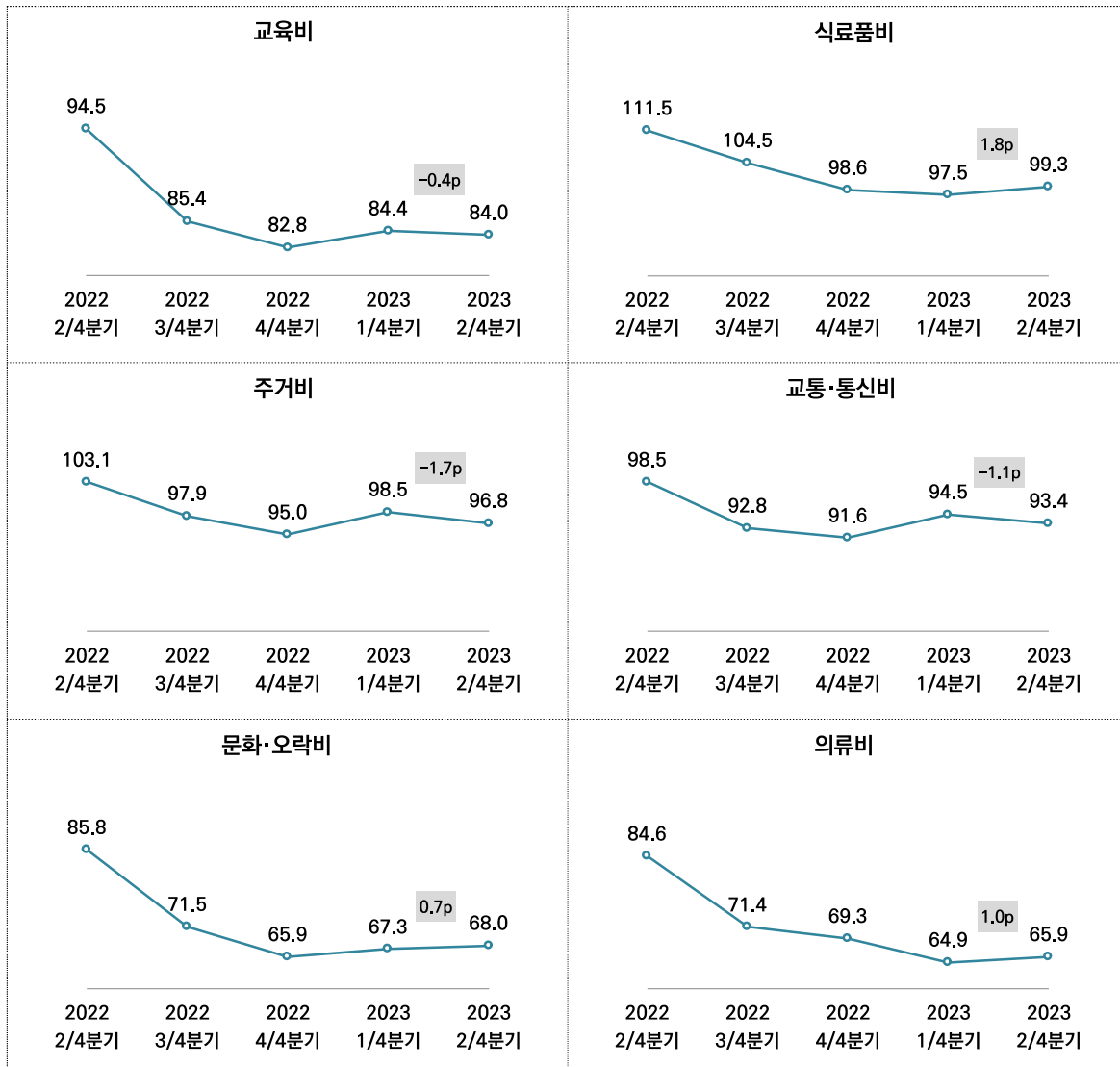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12) '소비지출'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소비지출(1년 전 대비 현재의 소비 지출)과 미래소비지출(향후 1년 후 소비지출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지수는 기준치 100보다 클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임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중 '식료품비', '의류비', '문화·오락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

- 2023년 2/4분기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를 살펴보면, '식료품비', '의류비', '문화·오락비'가 1.0p대의 소폭 상승
  - '식료품비' 지수는 99.3으로 전 분기 대비 1.8p 상승했고, '의류비'와 '문화·오락비' 지수도 각각 1.0p와 0.7p의 미미한 상승을 기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오락비'나 '의류비'는 여전히 기준치(100.0)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
- 반면, 가계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비'는 전 분기 대비 완만한 하락
  - 2/4분기 '주거비' 지수는 96.8로 전 분기 대비 1.7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고, '교통·통신비'와 '교육비' 지수도 전 분기 대비 각각 1.1p, 0.4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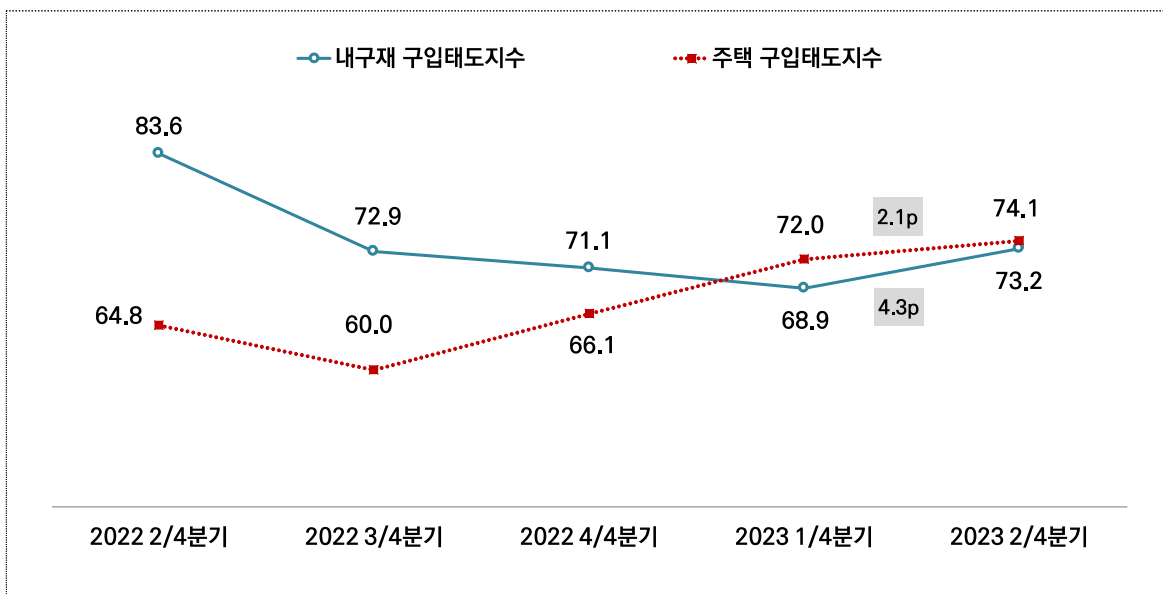


[그림 11]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2/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의 구입태도지수<sup>13)</sup>는 모두 상승한 가운데 동조화

- 2023년 2/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73.2로 전 분기 대비 4.3p 상승 반전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0)에는 미달
  -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11.5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가 상승했고, 그 중 50대에서 5.9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2023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4.1로 2022년 3/4분기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2/4분기에 2.1p의 완만한 상승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7.5p)와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1.0p)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8.1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50대(-1.4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60대의 상승폭이 8.9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이와 관련해 올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월~4월 중 꾸준한 하락세 : 2022년 11월 100.6 → 12월 98.7 → 2023년 1월 97.4 → 2월 96.7 → 3월 96.1 → 4월 95.8<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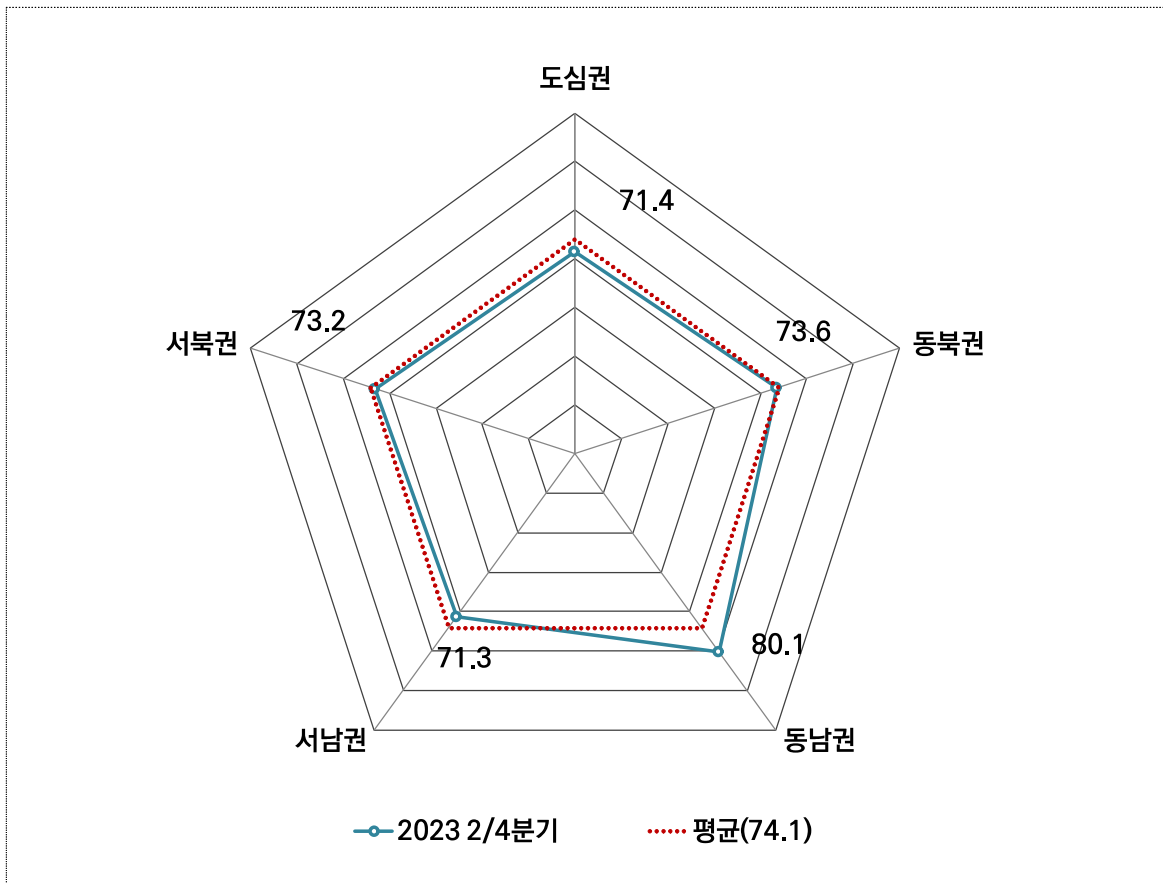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13)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지금이 가구에서 사용하는 대형물건(예: 가구, 승용차, 냉장고 등)과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적정 시기인가를 조사하여 지수로 산출한 것임. 지수는 기준치 100보다 클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임

14) 2021년 9월 기준,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의 기준시점(단위)이 기존 '2017.11=100'에서 '2021.06=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수의 흐름과 변동률은 동일함(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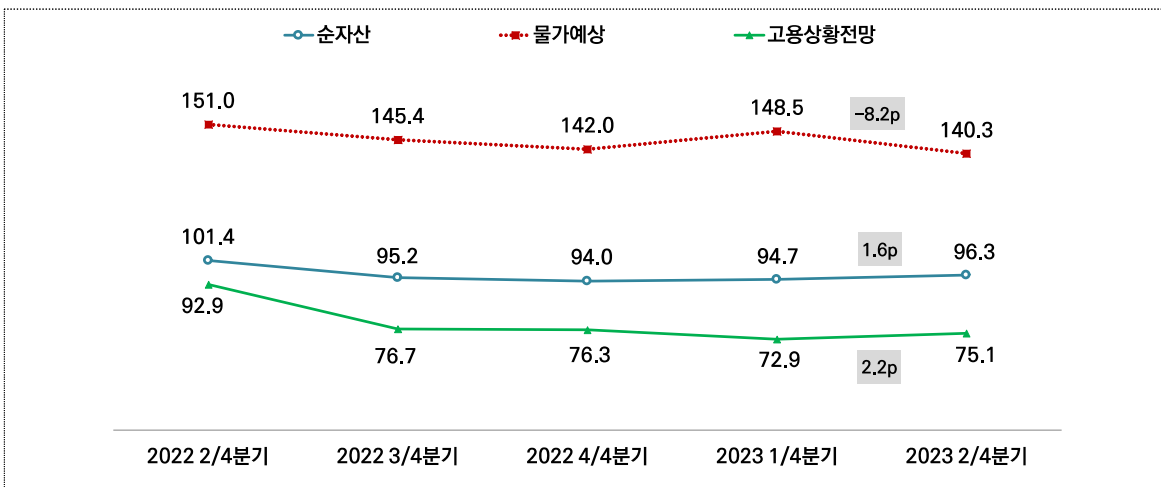
- 2023년 2/4분기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두 상승
  -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남권(80.1)이 가장 높고, 나머지 동북권(73.6), 서북권(73.2), 도심권(71.4), 서남권(71.3)은 비슷한 수준
  - 추세상으로도 서울의 모든 권역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도심권은 5.8p로 가장 큰 폭의 상승



[그림 13] 서울의 5개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2/4분기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소폭 상승한 가운데 물가예상지수는 큰 폭의 하락<sup>15)</sup>**

- 2023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96.3으로 전 분기 대비 1.6p 소폭 상승
  - 가구소득별로 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금융자산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부채 감소'가 35.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금융자산 증가'가 41.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채 감소'(27.2%), '소득 증가'(23.8%)의 순으로 조사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여전히 80을 하회하는 보수적 전망 속에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한 75.1을 기록
  -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2,4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8.9p의 가장 큰 상승을 보임
  - 연령별로 보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상승했으며, 특히 50대에서 전 분기 대비 7.7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순자산이나 고용상황전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예상지수」는 140.3(전 분기 대비 -8.2p)으로 2022년 2/4분기 이래 하락세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 하락한 가운데, 4,800만 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 11p 수준의 낙폭을 보이며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대별로도 모두가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40대와 50대의 하락폭이 각각 9.8p, 9.3p로 가장 크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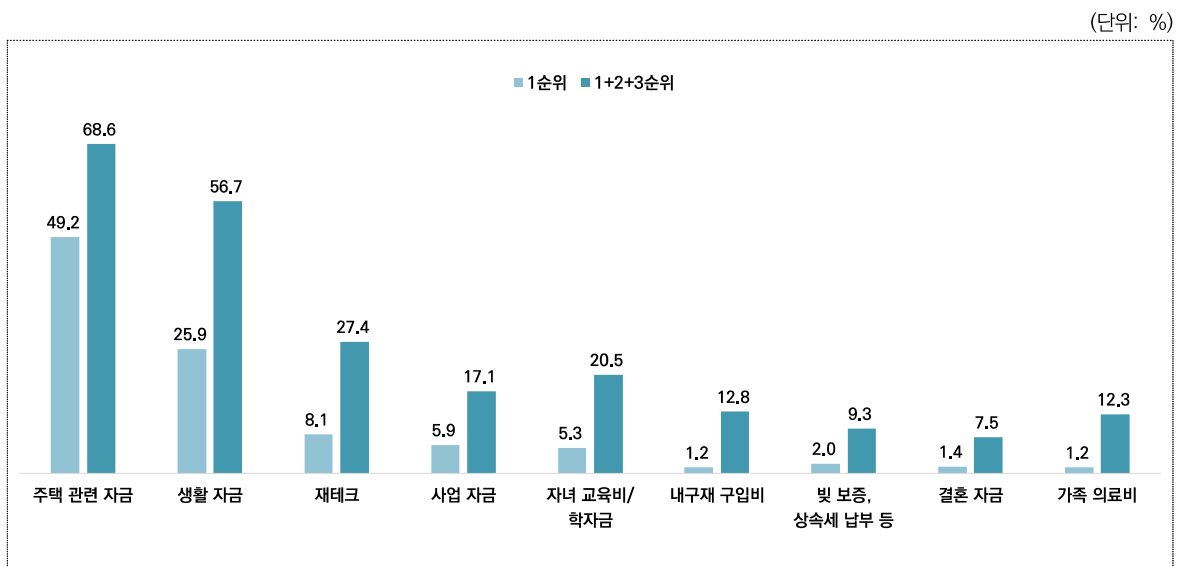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순자산·고용상황전망·물가예상지수

15) '순자산'이란 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가계자산에서 은행 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현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현재의 순자산 증감 정도를 조사하여 순자산지수를 산출함. '물가'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물가 예상 정도를 조사하여 물가예상지수를 산출함. 고용상황전망지수는 과거 1년 동안의 고용상황 정도를 기준으로 향후 1년 후 예상되는 고용상황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 서울지역 가계부채 보유가구 비중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주택이나 생활자금에 사용

- 2023년 2/4분기 현재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한 55.4% 차지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연령별로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중 40대가 60.2%로 가장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21.4%로 전 분기(21.1%) 대비 미미하게나마 상승<sup>16)</sup>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5.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2.3%), ‘상환 안 함’(2.6%)의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으로 조사
  - 1순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49.2%), ‘생활 자금’(25.9%)으로, 전 분기 대비 ‘주택 관련 자금’은 1.8%p 감소한 반면, ‘생활 자금’은 1.2%p 증가
  -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았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생활 자금’의 비중이 각각 34.6%, 42.0%를 차지하며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복수 응답(1+2+3순위)의 경우에도 ‘주택 관련 자금’(68.6%), ‘생활 자금’(56.7%)과 ‘재테크’(27.4%)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15]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16)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

##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 종합 소비자 체감 경기지수(CSI)인 ‘소비자태도지수’는 아래의 5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단, 특정 개별지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값 적용)
  - 5개 주요 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판단지수, 내구재구입지수
  - 산출 방식

$$\text{소비자태도지수} = \frac{(a+b+c+d+e)}{5}$$

*a* : 현재생활형편지수  
*b* : 미래생활형편지수  
*c* : 현재경기판단지수  
*d* : 미래경기판단지수  
*e* : 내구재구입지수

- 위 5개 항목별(*a~e*) CSI는 소비자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5점 척도로 질문하되, 각 척도별로 0~200점의 수치를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
  - ‘매우 감소, 매우 악화’ 0점, ‘다소 감소, 다소 악화’ 50점, ‘동일, 유지’ 100점, ‘다소 증가, 다소 호전’ 150점, ‘매우 증가, 매우 호전’ 200점

$$CSI_{a \sim e} = \left( \frac{0 \sum_{ij \in n_1} n_{ij1} + 50 \sum_{ij \in n_2} n_{ij2} + 100 \sum_{ij \in n_3} n_{ij3} + 150 \sum_{ij \in n_4} n_{ij4} + 200 \sum_{ij \in n_5} n_{ij5}}{\sum_{ij} n} \right)$$

*i* : 권역을 나타내는 첨자 (*i* = 1(도심권), 2(서북권), 3(서남권), 4(동남권), 5(동북권))  
*j* : 가구주 연령을 나타내는 첨자 (*j* =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n<sub>ij</sub>* : *i* 권역, *j* 가구주 연령 그룹 내 조사된 응답 가구 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 가구 수 ( $(n_1, n_2, n_3 \dots n_n) \in n$  : 문항별 조사된 응답 가구 수)

## 부록 2. 2023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시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우리 조사와 유사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임
  - 한국은행의 ‘2023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5.1로 전월 대비 3.1p 상승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2년 2/4분기	101.2	86.2	100.0	70.8	94.3	83.6	64.8
2022년 3/4분기	90.7	83.6	93.7	57.9	72.4	72.9	60.0
2022년 4/4분기	89.1	83.2	91.5	56.4	68.5	71.1	66.1
2023년 1/4분기	88.0	78.3	94.0	53.2	70.8	68.9	72.0
2023년 2/4분기	91.0	80.2	93.6	59.0	73.3	73.2	74.1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2년 2/4분기	116.3	96.3	101.4	92.9	151.0
2022년 3/4분기	112.3	87.3	95.2	76.7	145.4
2022년 4/4분기	109.0	83.9	94.0	76.3	142.0
2023년 1/4분기	112.3	84.5	94.7	72.9	148.5
2023년 2/4분기	110.9	84.6	96.3	75.1	140.3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임 (2023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23년 5월 2일~ 5월 16일)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